

중국 임금제의 기본 현황과 변화 방향

양리밍(楊黎明)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 부소장)

■ 중국의 임금체계 개요

기업의 임금체계

중국 기업¹⁾의 임금(분배)체계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개혁개방 이전의 통일된 집중관리체계에서 '시장 메커니즘 조절, 기업의 자발적 분배, 공정한 협의를 통한 확정, 정부의 지도 감독'을 골자로 하는 현 체계로 점차 진화되었다. 현재 민영기업과 주식회사 대부분의 임금분배는 기본적으로 이미 시장화되었으며, 국유기업의 임금분배는 시장 지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그에 필요한 관리와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의 미시적 분배 시장체계는 이미 틀이 갖추어졌다. 경제성과 시장의 노동 가격에 따라 임금이 조절되며, 자율분배권을 지닌 기업은 대부분 직위급 중심의 분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연봉제 외에 주식 인센티브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

1) 역사 주 : 중국 기업의 유형은 소유 주체에 따라 전민소유(국가소유), 집체소유(지방정부 등), 개인소유(개인)로 나뉘는데, 전민소유 중 경영주체가 국가면 '국영기업', 민간이면 '국유기업'으로 구분한다. 집체소유는 집체, 즉 기관, 기구 등 단체, 개인소유는 개인이 경영주체가 되며 후자를 '사영기업'이라고 한다.

며, 상당수(몇 십만 개) 기업은 임금 단체협상제도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한편 정부의 임금분배조절제도 역시 마련되었는데, 이를 위해 노동법·노동계약법 등 법규 반포, 모든 성·구·시에서 최저임금 보장제도 시행,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제정, 임금 가이드라인 구축, 주요도시 노동시장 권장임금 조사 발표, 인건비 조사 예측 경보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국가공무원의 임금체계

2006년 ‘공무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은 직무와 직급이 상호 결합된 전국 통일의 새로운 공무원 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무원의 기본급은 직무급과 직급급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밖에 협준소외지역수당, 조정후수당, 보조급, 직위수당 등과 연말 일회성 상여금이 있다. 국가공무원의 임금체계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국무원과 인사, 재정 등의 부처 외에는 어떤 지역이나 부처도 자체적으로 직위수당 항목을 만들거나 직위수당의 지급 범위 및 기준을 조정할 수 없다. 나아가 중국은 공무원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제도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임금조사제도를 마련해 공무원과 기업 근로자의 임금소득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경제 발전, 재정 상황,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기구 근로자의 기본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임금조사제도를 마련하기 전에는 국민경제 발전, 재정 상황, 물가수준 등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기본급 조정 폭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연말 일회성 상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도 고과 적합(합격) 이상을 받은 근로자에게 연말 일회성 상여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그해 12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2006년 공공기관은 직위 성과급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기본급은 직위급과 호봉급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밖에 성과급과 수당보조급이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 직위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기능을 강조한 것은 공공기관의 임금제도가 노동 및 인사제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각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상적인 임금조정체계를 마련해 정부기구 공무원의 임금제도와 제도적으로 분리하였

다. 운영 시 공공기관의 채용제도와 채용기간 관리를 위해 고과 결과에 따라 매년 한 호봉씩 인상한다. 국가는 공공기관 성과급 총액을 제한하며 공공기관은 산정된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분배의 자율권을 누린다.

■ 임금소득 수준과 인상 현황

2012년 중국 도시기업 취업자 평균임금 현황

2013년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 전국 도시기업 취업자의 평균임금은 46,769위안으로, 전년도 41,799위안보다 11.8% 인상되었다. 2012년 인플레이 요인(주민소비물가지수 102.6%)을 제외한 실질상승률은 9.2%였다. 국유기업 평균임금은 48,357위안(최고치), 도시 집체기업 평균임금은 33,784위안(최저치), 그리고 기타 기업 평균임금은 46,360위안을 기록했다.

2012년 업종별 및 등록유형별(소유제별) 기업 평균임금 현황

2012년 임금 상위 3대 업종은 금융업(89,743위안),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80,510위안),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69,254위안)이 차지했다. 이 3대 업종을 다시 등록유형별(소유제별)로 구분해 보면,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기업은 모두 기타기업이었으며, 2위는 국유기업, 최하위는 도시 집체기업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2012년 임금 상위 3대 업종의 등록유형별(소유제별) 평균임금

(단위 : 위안)

	전 체	기타기업 평균임금	국유기업 평균임금	도시집체기업 평균임금
금융업	89,743	97,706	82,040	61,756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80,510	90,839	57,056	38,770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69,254	83,362	64,206	46,890

자료 : 중국 국가 통계국.

2012년 임금 하위 3대 업종은 농림목축어업(22,687위안), 숙박 및 요식업(31,267위안),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32,343위안)이 차지했다. 이 3대 업종을 등록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기업 간 평균임금에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2012년 임금 하위 3대 업종의 등록유형별(소유제별) 평균임금

(단위 : 위안)

	전 체	기타기업 평균임금	국유기업 평균임금	도시집체기업 평균임금
농림목축어업	22,687	27,612	22,484	22,592
숙박 및 요식업	31,267	30,827	33,376	27,535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32,343	37,466	32,152	24,432

자료 : 중국 국가 통계국.

2009~2013년 도농주민 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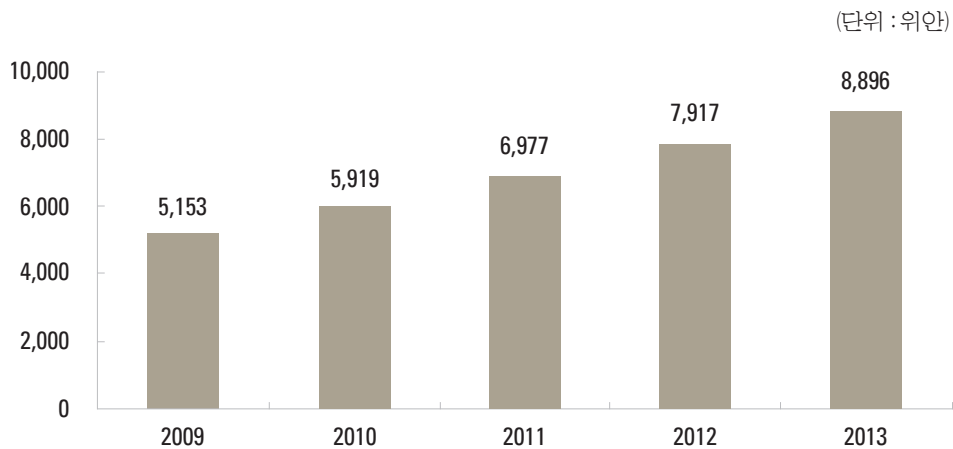
2013년 도농주민 소득은 증가세가 계속되었다. 연간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은 8,896위안으로 전년대비 12.4% 인상되었으며,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상승률은 9.3%였다. 반면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6,955위안으로 전년대비 9.7% 인상되었으며,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상승률은 7.0%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식품소비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7%로 전년대비 1.6%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도시는 35.0%로 1.2%포인트 하락하였다.

1978~2012년 도농주민가구 1인당 소득 및 앵겔지수 현황

도시주민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78년 343.4위안에서 2012년 24,564.7위안으로 늘어났으며 명목소득은 71.53배, 실질소득은 11.47배가 늘어났다. 한편 1978년 57.5%였던 도시주민가구 앵겔지수는 2012년 36.2%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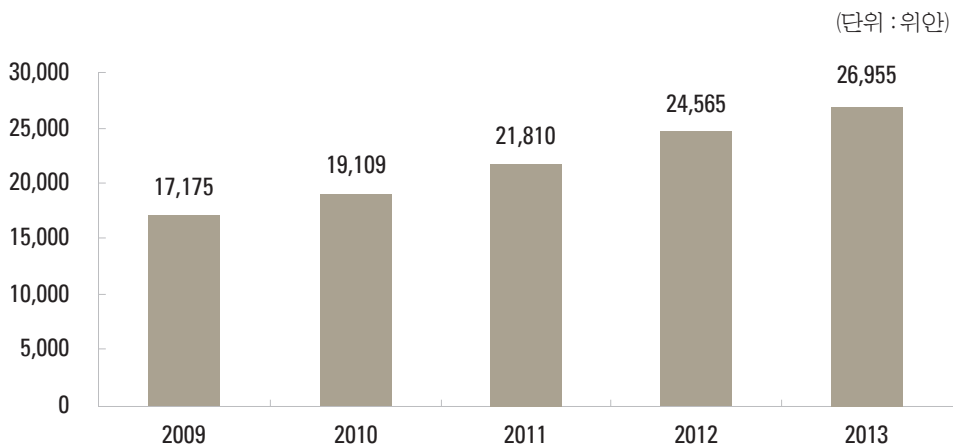
1978년 133.6위안이었던 농촌주민가구 1인당 순소득은 2012년 7916.6위안을 기록했으며 명목소득은 59.26배, 실질소득은 11.77배가 늘어났다. 한편 1978년 67.7%였던 농촌주민가구

[그림 1] 2009~2013년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그림 2] 2009~2013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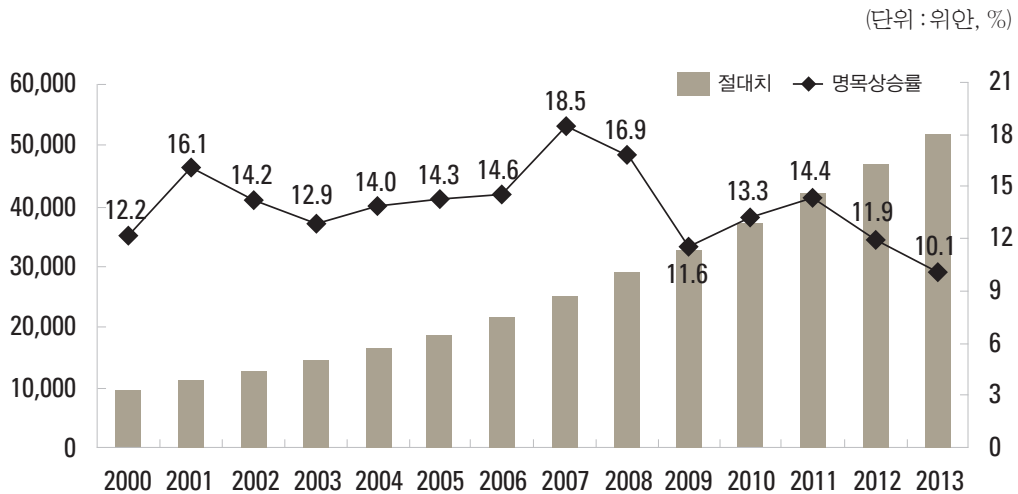
엔젤지수는 2012년 39.3%로 하락했다.

2013년 도시 공기업 취업자 연평균 임금 현황

2014년 5월 27일 국가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전국도시 공기업 취업자의 연평균 임

금은 51,474위안으로 2012년의 46,769위안보다 4,705위안이 늘었으나, 전년동기대비 명목상승률은 2012년 11.9%에서 2013년 10.1%로 1.8%포인트 하락했다. 그중 재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52,379위안, 동기대비 명목상승률은 10.1%로 2.0%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요인을 제외한 2013년 전국도시 공기업 취업자 연평균 임금의 실질상승률은 7.3%로 나타났다.

[그림 3] 2000~2013년 도시 공기업 취업자 연평균 임금 및 명목상승률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4대 권역별 2013년 도시 공기업 취업자의 연평균 임금은 상위부터 동부, 서부, 동북부, 중부로 각각 5만 8,563위안, 4만 6,966위안, 4만 3,438위안, 4만 2,767위안이었으며, 동기대비 명목상승률은 상위부터 각각 서부 11.9%, 동북부 10.7%, 동부 9.6%, 중부 6.6%를 기록했다.

업종별 연평균 임금 상위 3대 업종 중 1위는 금융업(99,659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1.94배, 2위는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90,926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1.77배, 3위는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76,603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1.49배를 기록했다. 반면 연평균 임금 하위 3대 업종 중 1위는 농림목축어업(25,820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50%, 2위는 숙박 및 요식업(34,043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66%, 3위는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36,122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70%를 기록했다. 상위 업종과 하위 업종의 평균임금비는 3.86으로 2012년의 3.96보다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표 3〉 2013년 도시 공기업 지역별 취업자 연평균 임금

(단위 : 위안, %)

	2012	2013	명목상승률
전 체	46,769	51,474	10.1
동 부	53,444	58,563	9.6
중 부	40,110	42,767	6.6
서 부	41,959	46,966	11.9
동북부	39,245	43,438	10.7

자료 : 중국 국가 통계국.

〈표 4〉 2013년 도시 공기업 취업자 업종별 연평균 임금

(단위 : 위안, %)

	2012	2013	명목상승률
전 체	46,769	51,474	10.1
농림목축어업	22,687	25,820	13.8
광업	56,946	60,139	5.6
제조업	41,650	46,431	11.5
전기, 열기, 가스, 수도 생산공급업	58,202	67,082	15.3
건설업	36,483	42,072	15.3
도매 및 소매업	46,340	50,308	8.6
교통수송, 창고, 우편업	53,391	57,872	8.4
숙박 및 요식업	31,267	34,043	8.9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80,510	90,926	12.9
금융업	89,743	99,659	11.0
부동산업	46,764	51,048	9.2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53,162	62,543	17.6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69,254	76,603	10.6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32,343	36,122	11.7
주민 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35,135	38,428	9.4
교육	47,734	51,951	8.8
보건 및 사회 업무	52,564	57,991	10.3
문화, 교육 및 오락업	53,558	59,339	10.8
공공관리, 사회보장 및 사회기구	46,074	49,245	6.9

자료 : 중국 국가 통계국.

등록유형으로 나눌 경우 연평균 임금 상위 3대 유형 중 1위는 외국계 투자회사(63,171위안)로 전국 평균의 1.23배, 2위는 주식유한회사(61,145위안)로 전국 평균의 1.19배, 3위는 국유기업(52,635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1.02배를 기록했다. 반면 연평균 임금 최하위 유형은 집체기업(38,904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76%를 기록했다.

〈표 5〉 2013년 도시 공기업 등록유형별 취업자 연평균 임금

(단위 : 위안, %)

	2012년	2013년	명목상승률
전 체	46,769	51,474	10.1
국유	48,357	52,635	8.8
집체	33,784	38,904	15.2
지분합작	43,433	48,631	12.0
공동경영	42,083	43,973	4.5
유한책임회사	41,860	46,717	11.6
주식유한회사	56,254	61,145	8.7
기타 중국계	34,694	38,306	10.4
홍콩마카오타이완계 투자	44,103	49,961	13.3
외국계 투자	55,888	63,171	13.0

자료 : 중국 국가 통계국.

2013년 도시 사영기업 취업자 연평균 임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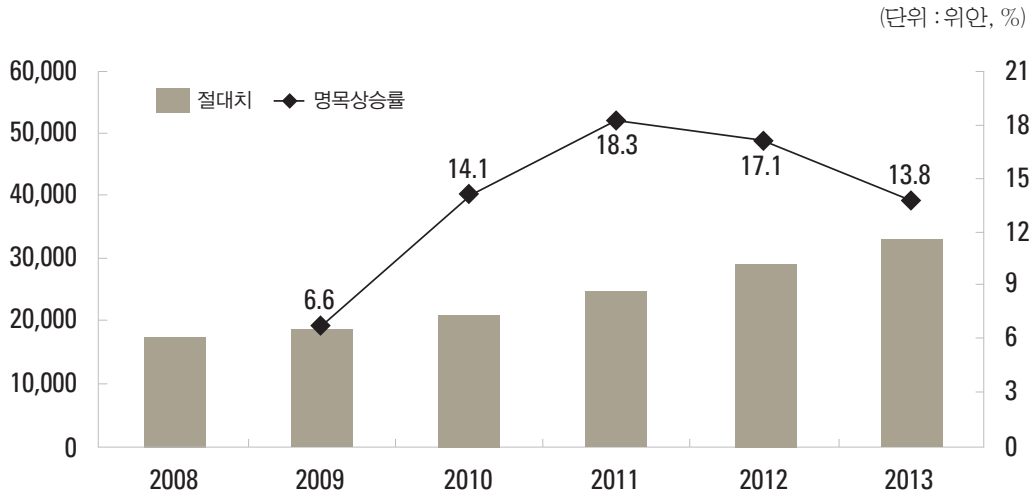
2014년 5월 27일 국가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전국도시 사영기업 취업자의 연평균 임금은 32,706위안으로 2012년의 28,752위안보다 3,954위안이 늘었으나, 전년동기대비 명목상승률은 2012년 17.1%에서 2013년 13.8%로 3.3%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요인을 제외한 2013년 전국도시 사영기업 취업자 연평균 임금의 실질상승률은 10.9%로 나타났다.

4대 권역별 도시 사영기업 취업자의 연평균 임금은 상위부터 동부, 서부, 동북부, 중부로 각각 3만 5,847위안, 3만 454위안, 2만 8,737위안, 2만 7,149위안이었으며, 동기대비 명목상승률은 상위부터 각각 서부 16.0%, 중부 14.3%, 동북부 14.2%, 동부 13.5%를 기록했다.

업종별 연평균 임금 상위 3대 업종 중 1위는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4만 4,060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1.35배, 2위는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4만 2,854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1.31배, 3위는 금융업(주로 각종 보험대행, 전당포 및 투자 컨설팅 회사, 3만 7,253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1.14배를 기록했다. 반면 연평균 임금 하위 3대 업종 중 1위는 농림목축어업(2만 4,645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75%, 2위는 숙박 및 요식업(2만 7,352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84%, 3위는 주민 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2만 7,483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84%를 기록했다.

[그림 4] 2008~2013년 도시 사영기업 취업자 연평균 임금 및 명목상승률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표 6> 도시 사영기업 지역별 취업자 연평균 임금

	2012	2013	명목상승률 (%)
전체	28,752	32,706	13.8
동부	31,579	35,847	13.5
중부	23,761	27,149	14.3
서부	26,252	30,454	16.0
동북부	25,162	28,737	14.2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표 7〉 도시 사영기업 업종별 취업자 연평균 임금

(단위 : 위안, %)

	2012	2013	명목상승률
전 체	28,752	32,706	13.8
농림목축어업	21,973	24,645	12.2
광업	29,684	33,081	11.4
제조업	28,215	32,035	13.5
전기, 열기, 가스, 수도 생산공급업	25,478	29,597	16.2
건설업	30,911	34,882	12.8
도매 및 소매업	27,233	30,604	12.4
교통수송, 창고, 우편업	28,159	33,141	17.7
숙박 및 요식업	23,933	27,352	14.3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39,518	44,060	11.5
금융업	32,696	37,253	13.9
부동산업	30,778	35,038	13.8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31,796	36,243	14.0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36,598	42,854	17.1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법	26,402	31,241	18.3
주민 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24,068	27,483	14.2
교육	26,625	31,521	18.4
보건 및 사회 업무	29,173	33,862	16.1
문화, 교육 및 오락업	26,177	30,402	16.1

자료 : 중국 국가 통계국.

■ 현재 임금분배상의 주요 문제 : 임금소득격차 확대와 일반노동자 임금상승 둔화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임금 개혁은 ‘평균주의’와 ‘공동배식’이라는 체제를 혁파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오히려 지속적인 임금소득격차 확대와 분배 불공정에 따른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여전히 큰 도농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주민 소득분배 격차, 둘째, 업종 간, 지역 간, 계층 간 현격한 임금소득격차, 셋째, 낮은 최저 임금 기준과 일반 노동자 임금,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대표적이다.

중국 전국 주민소득 중 지니계수 상승

중국 전국 주민소득의 지니계수는 2003년 0.479, 2004년 0.473, 2005년 0.485, 2006년 0.487, 2007년 0.484, 2008년 0.491이었고 해마다 하락하여 2009년 0.490, 2010년 0.481, 2011년 0.477, 2012년 0.474를 기록했다. 매년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도농 소득격차 확대

2012년 도시주민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24,565위안, 농촌주민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7,917위안으로 도농 간 격차는 3.10배였다. 2013년 도시주민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26,955위안, 농촌주민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8,896위안으로 도농 간 격차는 소폭 줄어든 3.03배였다. 참고로 1990년 도농 간 격차는 2.20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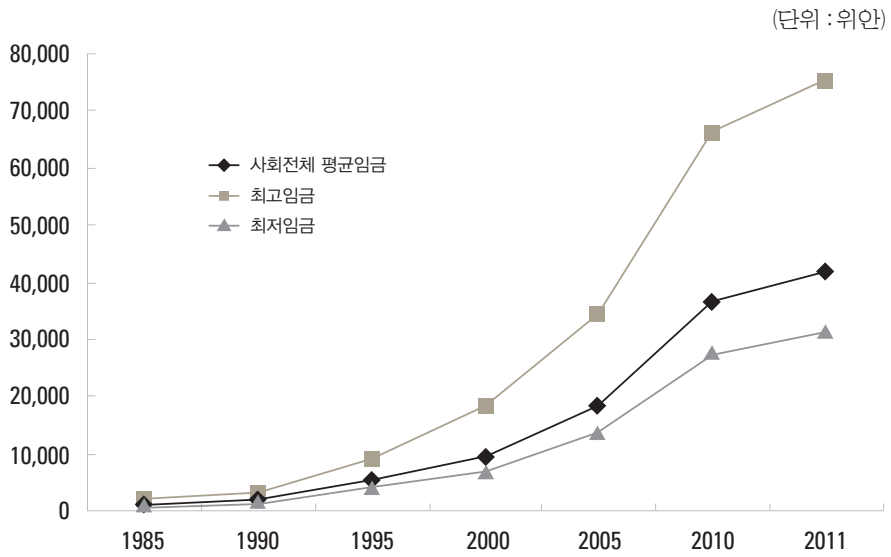
지역별 임금격차 확대

2011년 평균임금 최고 지역은 상하이 시로 75,591위안, 최저 지역은 헤이룽장성으로 31,302위안이었으며 최고-최저 간 격차는 2.41배였다. 2012년 평균임금 최고 지역은 베이징 시로 84,742위안, 최저 지역은 광시성으로 36,386위안이었으며 최고-최저 간 격차는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2.32배였다(그림 5 참조).

업종별 및 기업별 임금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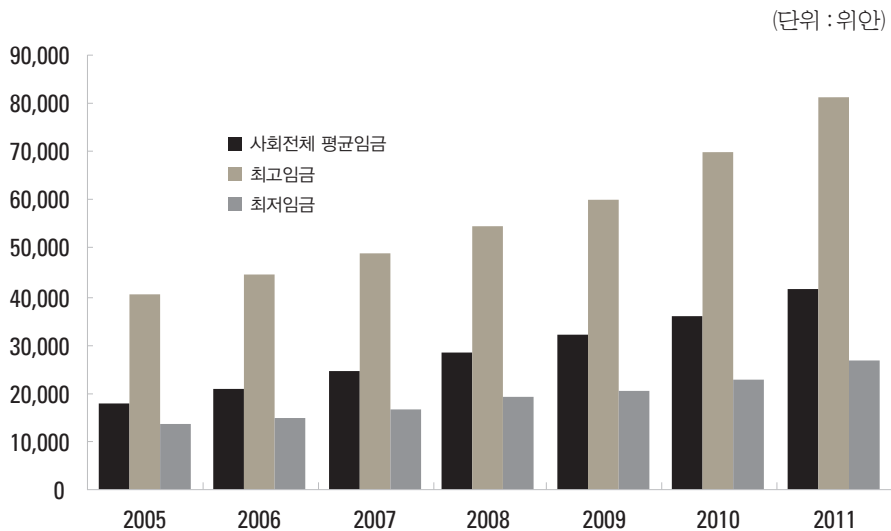
2012년 평균임금 최고 업종(금융업 : 89,743위안)과 최저 업종(농림업 : 22,687위안) 간 비율은 3.96:1로 2011년의 4.17:1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참고로 1978년의 업종별 임금소득격차는 1.81배였다(그림 6 참조).

[그림 5] 중국의 지역별 임금격차



자료 : 중국 국가 통계국.

[그림 6] 중국의 업종별 임금소득격차



자료 : 중국 국가 통계국.

기업 CEO와 일반직원 임금격차 확대

상장회사 공개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CEO 최고 연봉은 2005년 평균 29만 1천 위안에서 2010년 66만 8천 위안으로 증가해 당해연도 전국 평균임금의 18.3배를 기록했다. 극단적 예로 2007년 핑안보험(平安保險) 마밍저(馬明哲) 총경리의 연봉 총액은 6,616만 위안에 달해 당해연도 전국 평균임금의 2,751배를 기록했다.

일부 사영기업, 단순 노동자 임금 최저수준

2011년 전국도시 공기업 재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2,452위안, 전국도시 사영기업 취업자의 평균임금은 24,556위안으로 비율은 1:0.57이었다. 2012년 전국도시 공기업 취업자 연평균 임금은 46,769위안, 전국도시 사영기업 취업자 연평균임금은 28,752위안으로 비율은 1:0.61이었다.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은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현지 평균임금의 40%를 밑돌고 있다. 중국의 임금격차가 현격하다는 것은 첫째, 과거와 비교할 때 격차의 확대 속도가 빠르고, 둘째, 시장경제국가와 비교할 때 업종별, 기업별, 지역별, 도농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주요 원인으로는 여전히 전환 과정 중인 현재의 중국 경제체제와 미성숙한 시장, 그리고 단편적이고 미흡한 정부의 거시조정, 혼란스러운 분배 절차, 미비한 법규를 들 수 있다.

■ 임금체계의 변화 방향

중국 공산당 18대 대회와 정부 주민소득분배 기본목표 확정

중국 정부는 2020년 샤오캉 사회 전면달성이라는 목표 실현, 특히 GDP와 도농주민 1인당 소득 100% 증대를 위해 주민소득 증대 방안 강구, 국민 생활수준 전면 제고, 소득분배 격차 축

소, 소득 중위계층 지속 확대, 지원 빈곤층 대폭 감소를 추진한다.

도농주민소득 100% 증대

2020년 도농주민 1인당 실질소득의 2010년 대비 100% 증대를 실현하고, 중하위층 소득 증대의 가속화와 국민 생활수준의 전면적 제고를 이룬다.

소득분배 격차 점진 축소

도농·지역·주민 간 현격한 소득격차의 효과적인 해소, 지원 빈곤층의 대폭적인 감소, 소득 중위계층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점차 '항아리형' 분배 구조를 형성한다.

소득분배 질서 현격히 개선

합법적 소득에 대한 강력한 보호, 과다 소득에 대한 합리적 조절, 음성적 소득에 대한 효과적 규제, 불법적 소득에 대한 단호한 단속을 시행한다.

소득분배 구조 합리화

국민소득분배 중 주민소득의 비중과 1차 분배 중 노동보수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재정지출 중 사회보장과 취업 등 민생지출의 비중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주민 소득분배 개혁의 기본방침

주민 소득분배 개혁을 위해서는 함께 잘사는 사회모델 추구와 현격한 소득분배격차 해소 노력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더 널리, 더 공정하게 돌아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배방식을 채택하며, 1차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조정을 병행한다. 노동·자본·기술·관리 등의 요소가 기여도에 따라 분배에 반영되는 1차 분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세수·사회보장·이전지출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재분배 조정 제도를 조속히 완비한다. 또한 도농주민의 소득 증대, 소득분배격차 해소, 소득분배 질서 정립

을 중심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성장, 노동보수 인상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득분배 체계를 점차 형성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화합,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업 임금제 개혁을 통한 1차 분배제도 보완

노동·자본·기술·관리 등 요소가 기여도에 따라 분배에 반영되도록 1차 분배 체계를 보완한다. 또한 기업이 소유자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공평한 생산 요소 사용, 공정한 시장 경쟁 참여, 동등한 법적 보호를 누리도록 하며, 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요소 가격체계를 형성한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수급 현황과 기업의 경제성을 반영하는 임금결정 및 정상적 인상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단체협상제도 및 업종별, 지역별 임금 단체협상을 추진한다

임금 단체협상이란 기업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국가 법률·법규에 따라 임금분배 제도, 임금분배방식, 임금소득 수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평등한 협상을 하여 만장일치로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임금 단체협상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지난 10여 년의 노력을 통해 임금 단체협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노동쟁의중재조정법’, ‘단체계약규정’, ‘임금 단체협상시행령’, ‘지역별·업종별단체협상전개에관한의견’ 등을 기반으로 법규체계가 구축되어 임금 단체협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단체협상 및 단체계약법 또는 규칙을 제정·반포하여 현지의 임금 단체협상을 지원하는 부대 정책 법규로 삼고 있다.

향후에는 주로 사영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업종별 임금 단체협상과 지역별 임금 단체협상을 모색해 2015년까지 단체협약 체결률을 80%로 제고하고 일부 업종 직원의 임금 저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사례1 : 우한 최초 요식업 임금단체협상 추진

3차례 협상, 5차례 협의, 100여 차례 크고 작은 회의를 거쳐 2011년 4월 23일 '우한시 요식업 단독 임금단체협약' (이하 '협약')이 공식발표되었다. '협약'은 우한시의 45만 요식업 종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최저임금 기준 시 최저임금 기준의 130%, 중심도심 최저임금 월 1,170위안, 신도심 최저임금 월 975위안, 임금인상률 연 9% 이상, 1일 야근시간 3시간 미만, 주당 휴식 1일 이상을 확정하고 5월 1일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기업 및 인원수에 있어 역대 최대의 업종별 단체협상으로 기록된 이번 계약은 중국 전역에서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100여 개 매체와 인터넷 포털에서는 이를 임금협상의 '우한사례'로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우한사례'의 경험을 진지하게 수용하여 단체협상의 능력, 성과, 수준을 격상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사례2 : 칭다오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임금단체협상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임금 단체협상을 통해 직원의 연평균 임금 인상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노동 집약형 기업이 건별 임금제를 시행할 경우는 반드시 임금 단체협상을 실시해야 하며, 협의를 통해 정한 건별 보수는 칭다오시 최저임금 기준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유기업 CEO 연봉보수 관리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CEO 연봉보수 제도를 마련하여 유형별로 관리하고자 한다

국유기업 대표 간 연봉보수 격차 확대 과정을 보면, 지난 1990년대 정책에서는 2~3배, 일부 지방에서는 4~6배로 규정하였으나, 이 수치가 2000년대 이후에는 8~12배로 점차 늘어났으며 현재 일부는 20배에 달하거나 높은 곳은 100배를 넘는 경우도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지나친 것은 아니나, 국유기업 대표의 인사제도와 지난 10년간 연봉의 빠른 상승 추세로 볼 때 국유기업, 특히 금융기관 CEO의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일반직원과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국유기업 대표의 연봉, 업적고과, 연봉지급에 관한 기준과 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국유기업 대표의 연봉 인상 폭이 사회 평균을 밑돌거나 심지어 동결 되도록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국유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조치로 첫째, 지나친 고임금 업종 및 기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① 세수 기능 강화를 통한 업종 및 기업의 등급 차에 따른 수익 국고 환수, ② 임금에 대한 관리감독과 임금 총액 및 임금수준에 대한 규제 강화, 엄격한 임금인상 정책 실시, ③ 인력자원 시장 정비, 업종 보호 장벽 제거, 인력 이동 채널 확보를 통해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경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소득 업종 및 기업을 규제하고자 한다.

재분배 조정제도 조속히 완비

세수, 사회보장, 이전지출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재분배 조정제도를 조속히 완비한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 완비, 이전지출제도 보완,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강력 추진한다. 또한 세수 조절 강화, 개인소득세 개혁, 재산세 보완, 구조적 감세 추진, 중하위 소득자 및 영세기업 세비 부담 경감, 구조 최적화 및 사회 정의에 유리한 세제 마련을 추진한다. 한편 도농주민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를 전면 구축한다. 전 국민 대상의 기본에 충실한 다층적 지속가능 체계 실현 방침과 공정성 강화, 유동성 수용, 지속가능성 보장이라는 요강에 따라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장수준을 착실히 제고하며, 전국 범용 사회보장카드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농민소득의 빠른 증대 촉진을 위한 장기적 제도 구축 완비

구체적으로 ‘공업에 의한 농업 육성’, ‘도시에 의한 농촌 지원’, ‘농업에 대해 더 주고 덜 건기 활성화’ 정책 유지, 도농 발전 통합 체제의 조속한 보완, 강한 농업, 농민을 위한 농업, 부유한 농업 육성 정책 강화, 공업화·정보화·도시화 및 농업의 현대화 동시 달성, 도농 간 공공자원 균형배치, 도농 간 생산요소 평등교환 및 자유이동 촉진, 도농계획·인프라·공공서비스 통합 추진, 농촌 출신 인구 시민화 제도 구축 완비, 호적제도 개혁 및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기획 추진을 내용으로 한다.

양대 동기화 달성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성장의 동기화, 노동보수 인상과 노동생산성 제고의 동기화와 함께 국민소득분배 과정에서 주민소득의 비중 제고, 1차 분배 과정에서 노동보수의 비중 제고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과 함께 국민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소득분배 과정에서 노동보수의 인상률은 낮았고 노동보수 비중의 하락폭은 컸다. 1992년 54.6%이던 노동보수의 비중이 2010년 47.8%로 줄어들면서 불합리한 소득분배 구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분배 과정에서 노동보수 비중의 단계별 제고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한 조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제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적시 조정하여 2015년까지 평균임금의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규정하였다. **KLI**